

# 받는 것이 더 큰 재능기부

## Public Opinion Talent Donation is Rewarded



**장양순** | Chang, Yang-soon, KIRA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약력**

- 전 본지 편집위원장 및 담당이사
- 전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 한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작년부터 모 교회 공사 자문을 해주고 있었는데, 터파기 공사 중 시공사는 부도가 나고 감리자도 중도 사퇴하게 되었다. 교회는 건축내용을 잘 안다는 이유로 필자에게 감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직원을 내보내도 감리 외적인 수많은 문제는 직접 관여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보수가 부족했다. 또한 5년간 협회이사와 신문편집국장직의 바쁜 일정에서 막 벗어난 터라 등산, 박물관 순례, 음악공부 등으로 오랜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고민하다 돌아보니 60 이후에는 '재능기부로 살자'던 생각이 떠올랐다.

필자는 50 들어 돈보기를 쓰던 날, 60이 되면 막내가 대학과 군복무를 마치게 되니 결혼 시킨 후 귀향하기로 계획표를 짰다. 주중 3일은 건축사 업무를, 나머지 4일 중 하루는 후학을 위한 강의, 하루는 교회, 하루는 취미생활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고향을 위해 봉사 할 계획이었다. 30년 전 5명의 동지와 함께 창립한 당진지역 사회연구소에도 들르고, 고향에 없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약속했던 동지들과 힘을 합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식은 장가 대신 유학 가고, 아내는 귀향을 망설였다. 60들어 5년간 한 일은 협회의 이사로서 건축문화신문을 창간하고 키워온, 나만의 문학적 재능기부였던 셈인데, 이제는 나에게 직업적 재능을 주신 분께 그 키를 돌리기로 하였다.

사무소를 개업한지 37년 만인 5월1일, 처음으로 상주감리자가 되었다. 컨테이너 하우스 반 칸의 비좁고 열악한 내 방. 그곳은 공사대금을 유용한 건설사 때문에 월말 기성금 청구서 검토와 배분으로 고민을 하게하고, 정상적이라면 무관한 하도자의 자재 발주 확인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집과 현장이 700여m이다 보니 강의 등으로 종일 있지 못해도 조석으로 체크할 수 있고, 밤 늦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때도 지켜볼 수 있어 좋다. 교회가 건

축주라 토, 일요일에 미팅이 많아 뺏기는 시간도 많지만, 신자로서 하나님에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기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바뀐 것도 많아 책을 보며 공부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포스트텐션공법 등 처음 접하는 분야도 신선하다. 게다가 9월부터는 퇴근길이나 여유시간을 택해 석촌호수를 돌아 집까지 4.2km를 걷는다.

*안나푸르나봉의 눈바라기*

소음 가득 찬 현장을 이용해 클라리넷을 독학한지도 두 달이 넘었다. 틈을 내어 골프연습장도 들러다 보니 70대 싱글을 하는 기쁨도 맛보았다. 오페라, 음악회, 연극 감상은 물론 작곡공부까지 계획했던 것들이 감리업무와 무관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 그뿐이랴! 종강과 함께 신문편집국장 시절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계획했던 내팔의 안나푸르나봉 눈바라기도 하였다. 그것도 예정에 없던 시애틀의 절친한 친구와 함께.

한 평생 꿈꾸던 일 / 눈바라기 하고픈 곳  
구만리 멀고 먼 길 / 영혼 함께 달려왔네  
새벽빛 구름 뚫고 / 마주쳐 오서는 이  
장엄한 만년백의(萬年白衣) / 안나푸르나여  
홍진세상 쌓아 온 / 미움과 서러움  
설산(雪山)에 모두 묻고 / 눈리라 참 평화를.

하산 중 쓴 시를 인도로 가는 길에 곡을 붙여 일행과 합창했다. 오늘도 나는 망치소리 요란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질 외에도 받는 것이 더 큰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기도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곤 찬송가와 함께 자작곡 '안나푸르나봉의 눈바라기'를 클라리넷으로 연주한다.

-도 레-파, 미 레미 파 - ...